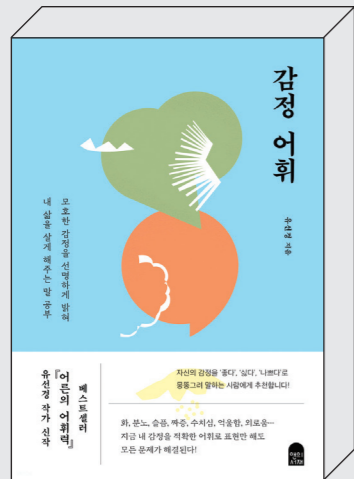


#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 책 속 한 줄

“다양한 감정이 납작하게 눌린 파이 같아서 한 겹 한 겹의 감정을 체감하지 못한다. 몽둥그려 그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뿐, 말로는 ‘대박’ 아니면 ‘파증’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뿐.”



### 감정 어휘

저자 유선경 | 출판 앤의서재

### 책 속 한 줄

“해가 뜨고 저야 하루가 가는 거야. 우리한테는 달이 있어. 소이치 달은 태양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거야. 그거 알아?”



### 태양

저자 마에카와 도모히로 | 출판 알마

###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특례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월별 책 추천, 책 리뷰, 사서가 만난 책의 공간들 등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함께합니다.

### 책 속 한 줄

“여러분 지금이 점심이에요. 우리 세 사람은 만나서 시 쓰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시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점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

저자 강혜빈 외 | 출판 한겨레출판사

### 책 속 한 줄

“그래도 누군가 허윤선 소스를 시도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국 식초, 반드시 중국 식초를 티스푼만큼은 넣으십시오.”



### 휘귀 : 내가 사랑하는 빨강

저자 허윤선 | 출판 세미콜론

### #아무진 세미 집순이가 추천합니다

놀라워도, 충격적이어도, 흥미로워도 ‘헐, 대박’. 기뻐도, 만족스러워도, 즐거워도 ‘너무 좋다’, 마음에 드는 소품을 발견했을 때, 전시회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취향인 옷을 걸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느낌 있네’로 통치곤 하는 내 어휘력의 한계를 실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좀 더 격렬하고 적당한 감탄사를 내뱉고 싶다고! 스스로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해 낼 수 있다면, 명확해진 어휘만큼이나 당신의 삶 또한 선명해질 것이다.

### #디카페인 유저차가 추천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지하게 잡고 읽은 희곡집이다. 이미 연극은 끝나서 전적으로 나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읽었지만 연극이 너무 보고 싶다.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중 살아남은 자들은 변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의 형태로 진화한다. 이들의 면역력이나 신체는 초월적인 상태로 변화되었으나 햇빛 아래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었다. 이들을 ‘녹스’라고 부른다. 녹스로 아직 변이되지 않은 자들을 ‘큐리오’라고 부르는데 30세 이하의 큐리오만이 녹스로 변화할 수 있다. 녹스가 될 것인가. 멸종해가는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 #무채색 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

점심 메뉴 선정에 진심인 사람을 위한, 곳곳이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점심시간을 틈타 탄짓하는 사람을 위한, 시인 9명이 점심시간에 써 내려간 시집이다. 함께 즐기기도 하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앗, 나도 이런 점심시간을 사랑하는데’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구절들을 만나기도 한다. 시의 다양한 모습과 수상하고 좋은 점심시간의 연속, 당신의 점심시간은 어떤가요? 오늘 점심엔 무엇을 먹었나요? 궁금합니다.

### #휘귀친구 마라탕이 추천합니다

사실 저의 외식 메뉴는 한정적입니다. 삼겹살, 회 그리고 휘귀. 휘귀를 선택하는 날은 삼겹살은 너무 기름지고,회는 너무 양에 차지 않을 때, 비가 주룩주룩 오거나, 찬 바람이 휘잉 불어서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어질 때입니다.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휘귀를 먹는 작가님. 주야를 가리지 않고 휘귀를 먹는 작가님. 작가님은 진정한 휘선생입니다. 휘귀를 좋아하는 이는 어서 이 책을 읽으세요. 이 책을 읽자마자, 저처럼 휘귀집으로 발길을 옮길 것입니다.